

[지선 D-30]전북교육감 선거…유성동·이남호·천호성 '3파전'

등록 2026.05.01 09:00:00 | 수정 2026.05.01 09:28:24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왼쪽부터 유성동·이남호·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교육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성동·이남호·천호성 후보 간 3파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각 후보는 교육 전문성과 정책 비전을 내세우는 한편 상대 후보의 약력과 공약 실효성을 둘러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선거는 '학력 중심 개혁'과 '학생 삶 중심 교육', '공교육 책임·복지 확대'라는 세 축이 맞부딪히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유성동 후보는 중등교육 전문직 출신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삶 전반을 책임지는 공교육'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대표 공약은 방과 후 돌봄·배움·신체활동을 통합한 '달빛시리즈',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낮추는 '공교육 3중 세트', 전북 일반고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일반고 전성시대'다. 학교 밖까지 이어지는 돌봄·교육 체계를 구축해 학생 삶 전체를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정 부담과 지자체 협력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남호 후보는 대학 총장 출신의 행정 경험을 앞세워 '전북교육 르네상스'를 기치로 내걸고 학력 회복과 인재 정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학력신장 3.0'을 통한 AI 기반 맞춤형 학습, 권역별 상산고 수준의 거점고 10개 육성, 독서와 시를 결합한 '질문하는 교실'이 주요 공약이다. 이를 통해 교육과 산업, 정주를 연결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특정 학교 중심 거점고 육성이 또 다른 교육 격차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초·중등 교육 현장 경험 부족을 둘러싼 검증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천호성 후보는 교육행정 경험을 토대로 '공교육 책임 강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기초학력 책임 보장제, 맞춤형 진학·진로교육, 교육복지 확대, 지역소멸 대응, 청렴 행정 등 5대 공약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책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기초학력 전담 교원 양성과 '전북학생진학·진로교육원' 설립,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 등이 핵심 정책으로 제시됐다.

다만 정책 기조가 김승환 교육감 시절의 이른바 '진보 교육' 노선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책 연속성이라는 긍정적 해석과 함께 과거 이념 교육 중심의 한계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병존한다.

세 후보 모두 '기초학력'을 공동 의제로 내세우고 있으나 접근 방식은 엇갈린다. 유 후보는 삶 중심 공교육 확대를, 이 후보는 AI 기반 학력 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천 후보는 공교육 책임 체계와 인력 확충을 통한 보장 중심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호진 전 예비후보가 최근 이남호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면서 선거 판세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단일화 효과가 본격화 경우 지지율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거나 역전 가능성도 제기되나 유성동 후보가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3파전 구도는 유지되는 흐름이다.

교육감 선거 특성상 높은 부동층 비율도 변수다. 현재까지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최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막판 표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천 후보 측의 표절 의혹과 연구년 중 선거 행보 논란, 이 후보 측의 연구 성과 관련 논란과 음주운전 전력 등이 거론되며 공방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각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르거나 정치적 공세라며 반박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단일화와 각종 변수 속에서 정책 경쟁과 인물 검증이 동시에 이뤄지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부동층 표심과 막판 이슈 대응이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